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투쟁

김 광 윤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나라를 일제에게 통채로 빼앗긴 상태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무장투쟁의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의 위력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정치사상적준비를 잘 갖추어 전투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대중을 혁명투쟁으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정치활동가로서의 능력과 풍모를 지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투쟁도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반일인민유격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게 됩니다.》(《김일성전집》증보판 제1권 458페이지)

혁명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그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지니고있는 자기 조국과 자기 계급에 대한 열화같은 충실성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그 어떠한 착취계급의 군대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의 힘을 가지게 된다.

비록 군사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지 못하면 혁명의 목적과 수행방도도 알수 없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도 가질수 없으며 결국 이런 사람은 혁명투쟁의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엇보다도 조선인민혁명군안에 정연한 정치사업체계가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조직체제와 공청조직체제를 정연하게 세우고 끊임없이 완비하며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정치사업을 위한 기구와 직제들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당 및 공청조직체제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은 무장대오에 대한 당적령도를 보장하며 대내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선차적인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1(1932)년 3월 안도에서 조직하신 소규모의 유격대오안에 당조직을 결성한 경험에 기초하여 반일인민유격대안에 당조직을 내오고 급속히 확대하도록 하시였다.

창건초기 반일인민유격대가 두만강연안의 유격구역들에서 중대단위로 활동하고있던 실정에서 각 중대마다에 당세포들을 조직하고 편의상 해당 지역의 지방당조직들에 소속

되어있었다. 그후 주체23(1934)년 3월~5월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되면서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나오고 아래당조직들이 정비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아래 사단에는 사단당위원회,련대에는 련대당위원회,중대에는 당세포,소대에는 당분조가 조직됨으로써 정연한 당조직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안의 청년들이 있는 모든 단위에 공청(후에 반일청년동맹)지부가 조직되었다. 공청사업은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정치부의 청년과와 청년간사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단과 련대들에 정치위원제를 두도록 하시고 사단당위원회밑에 정치부를,정치부에는 조직과,선전과,청년과 등의 부서들을 꾸리며 련대와 그 아래단위에는 정치부를 따로 두지 않고 련대에서는 련대정치위원이,중대에서는 중대정치지도원이 정치사업전반을 장악지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우수한 일군들로 정치기구들을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었을뿐아니라 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할수 있는 기질과 정열이 있으며 대원들속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정치일군으로 선발배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안의 대내정치사업에서 중앙집권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모든 문제들을 당조직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집행하는 제도를 확립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내안에 위력하고 정연한 정치사업체계가 세워지고 지휘관들과 대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다음으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이 강화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에서 진행되는 정치사업은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주체의 기치따라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반일사상과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혁명적락관주의,관병일치,군민일치의 미풍을 발양시키도록 하는것이 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높은 혁명적각오,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일체를 타승하고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결정적담보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속에서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4(1935)년 6월 새로 입대한 대원들과 담화하시면서 혁명이란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이라고 하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빼앗긴 조국,원썹들에게 짓밟힌 고향산천,혈벗고 굶주리는 부모처자를 생각하자,혁명을 먼저 생각하자,전체 인민이 잘 먹고 잘 입고 잘살게 될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자고 교시하시였다.

대원들은 혁명의 길에 그 어떤 폭풍이 휘몰아쳐와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미래를 낙관하며 과감히 뚫고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 및 정치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으로 모시고 투쟁하는 긍지를 가슴깊이 새겨주어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수령님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워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준비시켜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속에서 지난날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민족이 수난을 겪고 혁명이 실패만을 거듭하게 되었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한 내용과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도란에 빠진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유일한분이라는것을 깊이 심어주며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을 내들고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의 구호를 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혁명가들을 박해하고 압력을 가하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홍왜회의와 요영구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시였으며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자주로선을 다시금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주체25(1936)년 3월 남호두회의가 끝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번 회의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양양을 가져오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의인것만큼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회의에서 제시된 로선과 방침을 깊이 연구하여 뼈와 살로 만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결사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호두회의방침관철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국경일대애로 진출시키며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고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애로 확대할데 대한 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을 취급한 소자지하에서의 강습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남호두회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의 기치밑에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일대 양양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제당의 열하원정로선이 강요될 때에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발표하시여 집중적인 정치학습의 교재로 되게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 추호의 타협도 없이 견결히 투쟁하였다.

특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꾸준한 학습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깊이 체득하시고 대원들을 이끌어주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헐뜯는 혁명의 배신자와 맞서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 및 정치일군들은 대원들속에서 반일사상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에 힘을 넣었다.

《계급이란 무엇인가?》, 《계급투쟁이란 무엇인가?》로부터 혁명의 기본임무와 동력, 대상, 수행방도 그리고 《일체는 조선인민의 첫째가는 원쑤이다》, 《파시스트의 계급적본질은 무엇인가?》, 《지주, 자본가는 노동자,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등의 제목으로 대원들에게 일체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 식민지정책의 반동적본질을 인식시켰다.

이러한 교양은 일제의 학정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피눈물나는 생활을 겪은 대원들의 반일사상과 계급의식을 복돋아주고 혁명적자각을 더욱 높여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당 및 정치일군들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심어주어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에게 늘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에 대하여 그리고 강도일제에게 짓밟힌 나라와 겨레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알려주 시면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간직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많은 대원들이 조국을 떠나 이국살이의 세파속에서 조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있던 조건에서 조국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그들의 애국심을 높여주도록 하시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더욱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었다.

주체32(1943)년 9월 1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앞에서 하신 연설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조국의 력사와 지리, 찬란한 문화에 대하여 잘 알게 하고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는데서 기본교재였다.

하기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싸움의 나날을 보내였고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눈을 감으면서 조국을 그리였던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당 및 정치일군들은 대원들속에 필승의 신념과 의지, 혁명적락관주의 정신을 심어주어 불굴의 투사로 준비해나가도록 하였다.

혁명신념과 의지의 대결이며 혁명승리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의 편에 있다.

위대한 사상으로 전진하는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과 그 위업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 결사의 각오가 없이는 전진할수 없는것이 혁명이다.

혁명적신념과 의지는 미래에 대한 낙관에 기초할 때 더욱 공고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실지전투들을 통하여 적들이 강대한것 같아도 치면 너부러지고 파멸되며 일제를 쳐부시고 인민의 나라를 세울수 있다는것을 가슴에 간직하도록 하시었다.

1930년대말이후 정세는 우리 혁명앞에 엄혹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유격대와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면서 밀정들과 변절자들로 비렬한 귀순공작에 매달리었다. 그런데 일제가 조작한 《혜산사건》으로 혁명앞에 커다란 시련이 닥쳐오자 겁을 먹은 일부 사람들은 초지의 신념을 저버리고 적들에게 투항변절하였는가 하면 대오안에서는 의지박약자들이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혜산사건》을 겪으시면서 신념과 의지는 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자질이며 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시고 대원들속에서 신념교양을 더욱 강화하시었다.

주체27(1938)년 12월~주체28(1939)년 3월의 고난의 행군에서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양양으로 이끌어간 근본원천은 신념과 의지, 낙관이였다.

당시 일부 비겁분자들이 혁명의 저조기가 왔다고 하면서 대부대가 국내진출을 단행한다는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모험이라고 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앞에 닥쳐온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기본방도가 힘이 들더라도 고난의 행군을 해서 조국으로 나가는데 있다고 확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행군의 앞장에서 대원들을 이끄시며 물론 정세는 험악하다, 그러나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으면 능히 대세를 뒤집어놓을수 있다, 그러니 신심을 가지고 행군을 계속하자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대하여, 일제를 쳐부시고 인민의 새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래일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며 대원들의 가슴속에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축도라고도 할수 있는 고난의 행군에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자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쏘일중립조약체결과 파쑈도이첼란드가 쏘련을 침공하였을 때에도 변천되는 정세에 대처하여 무장투쟁의 현실적조건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사상동태 등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주체30(1941)년 5월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조선혁명가들이 주체적립장과 필승의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30(1941)년 7월 왕청현 자피겨우회의에서 자체의 힘으로 만난을 극복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만을 굳게 믿고 싸우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적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친 최희숙, 자기의 허를 꿔고 사령부의 안전을 지킨 마동희를 비롯하여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혁명만세, 미래를 사랑하라는 웨침으로 적들을 전률케 하였고 아름다리 나무들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고 새긴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 무수히 태어났다.

처창즈부근 밀림속에서 개구리료리로 기념한 주체29(1940)년의 5.1절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과 락관주의를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우등불가에서 대원들에게 혁명의 최후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적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혁명위업이 정당하고 우리모두가 필승의 신념으로 불타고있는것만큼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교야말것이며 오늘의 이 개구리료리가 미구에 대동강승어료리로 전환될 날은 반드시 오교야말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대원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적락관으로 끓어번졌으며 모진 곤난앞에서도 비판을 모르는 락관주의자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 및 정치일군들은 대원들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 나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와 대결하는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혁명전쟁이었으며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과 맞서 싸우는 피어린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과 립장을 세우며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니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우리에게는 무기도 식량도 가져올 데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것을 제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줄 아는 사람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혁명이 요구한다면 필요한 모든것을 제때에 만들줄 알아야 한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시였다.

주체25(1936)년 봄 미혼진밀영에 있는 무기수리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리한 총가목을 보시고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며 혁명을 위하여 이 악하게 달라붙어 하자고 노력한 결과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내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는 그 어떤 외부의 지원이나 남의 힘을 바라지 않고 투쟁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 및 정치일군들은 대원들속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교양에도 관심을 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인무장부대들과의 공동행동과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한 적배후교란작전을 진행하여 국제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전투들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고 국제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반제공동전선을 보다 강화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 일제에게 치명적인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세계혁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준엄한 불길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주체형의 혁명가로 단련육성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고상한 정치사상적품모와 높은 문화적소양, 능숙한 사업방법을 지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인공들로 키울수 있게 하는 튼튼한 뿌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고귀한 재부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며 천만군민을 승리에로 고무추동할것이다.

실마리어 신념, 정치사상적준비